

불교문화 행사 풍성

박물관 가을 특별전

10월을 맞아 여러 박물관들이 특별전을 준비하며, 평소 접할 수 없었던 각종 문화재와 자료들을 공개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문화재와 자료들은 학술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에서 두루 의미있는 것들이어서 주목된다. 주말을 이용해 온가족이 함께 박물관을 찾아 우리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공부하는 기회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 국립중앙박물관 '겨레의 글, 한글 특별전'

국립중앙박물관이 제554회 한글날을 맞아 준비한 '겨레의 글, 한글 특별전'은 우리 한글을 주제로 한 특별전으로는 처음 전개되는 전시다.

11월 5일까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계속되는 이 전시에는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해례본(간송미술관 소장)>과 국보 제142호인 <동국정운(건국대박물관 소장)>을 비롯한 국보 3점과 보물 10점 등 한글과 관련된 총 1백30여점의 문화재가 선보인다. 특히 국보 제212호 <능엄경언해>와 범종으로서는 드물게 한글이 음각된 구리종(월정사 성보박물관 소장), 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100호 한글부모은종경 목관(통도사 성보박물관 소장) 등 불교관련 한글유물이 다수 공개돼 눈길을 끈다.

이들 외에도 보물 제1220호로 지정된 조선 현종의 어필 편지와 왕실관련 한글유물, 추사 김정희 일가의 한글편지 등 한글 관련 회귀 문헌과 불교의 토착화, 교육의 발달, 근대화, 여성문화의 발전 등을 보여주는 한글 자료들이 소수특별로 전시된다. (02)398-5077

● 동대박물관 '근대 한국학 자료전'

근대 한국학과 관련된 주요 저술과 유물, 유필 등을 선보이는 동대박물관의 '근대 한국학자료전'은 동국대가 6년만에 준비한 특별전이다. 17일~12월 1일까지 박물관 2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별전은 불교학, 국사학, 국어학, 국문학, 한문학, 철학, 미술사학, 고고학을 중심으로 법학, 교육학, 국악, 언론, 서지학, 민속학, 사회학 등 역사 문화 사회 등 한국학 연구 재분야의 자료들을 한데 모았다. 1900년대 이후 한국학 연구자들의 성과를 중심으로 목필원고 외 각종 자료 187점 703매와 저서류 335권이 선보인다. 특히 불교학 분야에는 한국불교사학 정립



◇ '겨레의 글, 한글특별전'에서 선보이는 월정사 성보박물관 소장의 구리종. 범종으로서는 드물게 한글이 음각되어 있다.

중앙박물관 '능엄경언해' 등 한글 불교유물 다수

호림박물관 도자기·전적·불구류 1백21점 전시

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조영기 박사의 육필 노트 <원효대사연구>를 비롯, 권상로 선생의 육필원고 <능가경> 서두, 이기영 박사의 육필원고 <진여와 중승> <원효의 일승원고> 등이 공개된다.

이 전시품들은 동국대 한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얼마전 정년 퇴임한 황순구 박사의 애장품으로 평상시 접할 수 없는 희귀 자료들이다. (02)2260-3463

● 호림박물관 '구입 문화재 특별전 II'

11월 5일까지 열리는 '호림박물관 구입문화재 특별전 II'는 지난 93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호림박물관이 수집한 자료 가운데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만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번 구입문화재 특별전은 도자기와 전적(典籍), 불구류(佛具類) 등 104건 121점이

전시된다. 고려시대의 전적류 가운데 <감지은내대방 공불화엄경보현행원품(紺紙銀泥大方廣佛華嚴經諸行願品)>과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은 특히 눈길을 끈다. 금속공예의 수준과 명문(銘文)을 통해 당시의 사회, 경제상황 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불구류(佛具類) 또한 고려시대의 것을 중심으로 전시된다. 이번에 선보이는 <청동소종(靑銅小鐘)>은 기형(器形)·문양의 배치와 내용·크기 등에서 고려 범종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수작으로 꼽힌다. <청동 정유유년 명반자(靑銅貞祐六年銘飯子)>라는 명문을 통하여 재작 목적·시납처(施納處)·제작연대(1218년) 등을 알 수 있다. (02)858-2500

이은자 기자(ejlee@buddhania.com)

"오대산계 화엄사상 東亞불교학 발전 열쇠"

삼학사 국제학술회서 고지마씨 주장

오대산계 화엄사상을 중심으로 한·중·일 3국의 불교학을 융합, 21세기 동아시아 불교학의 초석을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지마 다이잔(일본 화엄학연구소장) 박사는 5일 열린 강원도 두타산 삼학사(주지 원형)의 국제학술강연회에서 "21세기 불교학과 그 실천"을 발표하고, "불교 사상을 시대와 의미로 구분·연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상 사이의 영향 관계를 탐구하고 동아시아 불교 전체를 꿰뚫는 연구 방법론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해 주목된다.

고지마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3국의 불교학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불교학은 오대산계 화엄사상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흥현의 사상으로 대표되는 오대산계 화엄사상은 중국의 임제 스님과 한국의 지눌 스님 그리고 일본의 묘에 스님 등 한 시대를 주도했던 3국 고승들의 불교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지눌 스님의 경우, 자신의 저서 <화엄철요> 서문에 '화엄의 사사무애'의 본 뜻을 알고자 수년동안 고뇌했는데, 이흥현의 <신화엄경론>을 만나 단박에 깨우쳤다"고



◇ 고지마 다이잔

했을 정도다.

또한 고지마 박사는 21세기 동아시아의 불교학은 실천하는 불교학이어야 한다는 데 주목하고, "오대산계 화엄사상의 실천행인 '불광관(佛光觀)'이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광관이란 이미지 트레이닝에 가까운 수행 방법의 하나로, 무상(無心)·무분별(無分別) 등을 자신에게 불의 화두선(火頭線)의 하나다. 지암·법장·의상 스님으로 이어지는 종남산계 화엄사상에서 선정상에 관한 철학이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천행이 없다.

고지마 박사는 결론에서 "오대산계 화엄사상과 화두선을 결합시킨 동아시아 불교학을 연구에서 머물기보다는 일상에 투영돼, 불자들이 무아(無我)라는 이상의 경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노력해야 한다"며, 동아시아 불교학의 역할까지도 제언했다.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ania.com)



◇ 다악 공연에서는 선다 시연과 다춤, 설치미술 등도 선보인다.

차와 전통음악이 빛나는 예향

15일 국악원 다악공연

한 잔의 차와 우리 정서에 꼭 맞는 다악 연주곡을 들으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다악(茶樂)' 공연이 15일 서울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린다.

다악이라는 음악 장르를 개발해 국내외에 선보이고 있는 한국창작음악연구회가 준비한 '차와 우리음악의 다리놓기 다악 페스티벌 2000-차천에 스며드는 사계'가 바로 그것.

지난 98년 첫 공연 이후 국내에서 세 번째로 선보이는 이번

다악 공연에서는 새로운 삶의 음악으로 다악을 조명하고, 차 한잔 속에 우리문화의 상징을 담아낸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테마로 볼 부분은 정대봉교수(서울대 작곡과)가 '새벽-여린' 차의 이슬에 맺힌 한세상'을, 여름은 이병욱교수(서인대 음악과)가 '한낮-타는 마음 한가운데'를, 가을은 김일섭교수(국민대 작곡과)가 '저녁-나뭇잎이 받쳐든'을, 겨울은 박일훈씨(국립국악원 연구실장)가 '밤-다우상'을 각각 우리 전통음악의 선율로 담아낸다. (02)2272-2152

제1회 한국전통문화미술대전

한국전통문화미술인회(회장 전연호)가 '제1회 한국전통문화미술대전'을 15일~20일까지 대구시민회관 상설전시실에서 갖는다.

한국전통문화미술인회는 지난 89년 전통문화와 불교미술의 계승, 발전을 위해 대구 경북지역의 전통미술인들이 함께 모여 결성한 모임이다. 단청, 불화, 조각, 건축 등 각 분야의 불교미술과 전통미술에 종사하는 지역의 작가 16명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 특히 전 회원이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문화재 기술, 기능보유자이며, 또한 무형문화재 이수자 및 전수자로서 우리나라 전통문화미술의 중흥을 위해 정진하고 있다.



◇ 전연호 작 '수월관음도'

이번 전시는 그동안 각자의 분야에서 작품활동에 전념해 오던 회원들이 모여 처음으로 여는 회원전으로 지난해부터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 성세함과 화려함이 돋보이는 전연호씨의 불화 '수월관음도'를 비롯, 수행자적 기운과 현대적 미감이 교차하는 김운기씨의 브론즈작품 '나한 1', 한자에 재색한 이정오씨의 '비현상' 등 20여 작품이 선보인다. (053)639-0407 이은자 기자



공목진 금강호서 창무극

해학과 익살, 신바람의 무대로 감동을 선사해 온 동물들의 명인 불자 공목진씨(69세)가 16일 오후 7시 금강산 성지 순례호 선상에서 평화 흥임을 기원하는 '창무극 특별공연'을 갖는다.

이 공연은 불교신문사가 창간 40주년 기념행사로 15~18일까지 실시하는 '금강산 성지순례'의 순례자들을 위해 마련된 문화공연이다. 지난 98년 뇌일혈로 쓰러졌을 때 광주 원효사를 찾았을 만큼 불심이 깊은 공목진씨는 이번 공연에서 창무극 심청전과 흥부전, 동물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불교방송 16일 가을 개편

'지금은 불교시대' 등 신설... 청소년 프로 강화

불교방송이 16일부터 영화음악실(밤 10시 5분), 삶에 생각하며(밤 11시 5분), 세계음악여행(일요일, 밤 11시 5분), 프라임뮤직(새벽 1시) 등 청소년과 청년 대상의 포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새 단장을 한다.

이번 개편에서는 삶의 근본 문제를 이야기하는 철학프로, 포교 정보 프로그램 강화, 국악 프로그램 등 일반 방송과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단장으로 불자들의 주의를 고집시키겠다는 전략을 짜놓고 있다. 우선 청취율이 높은 황금 시간대인 오후 4시 20분부터 오후 6시까지(월~토)는 교계종합시사 정보프로그램인 '지금은 불교시대'를 신설, 최정희, 김현태, 박인환 등도 생생한 교계 소식을 전달한다. 백팔가요(낮 12시 20

분)는 재치 발랄한 가수 길은정씨가 새로 진행을 맡아 나긋나긋한 오후 시간대에 활력을 불어 넣게 된다. 특히 개국 이래 처음으로 일요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생방송 즐거우셨습니까?'(오후 4시 15분)는 음악, 일반 생활 정보, 교통소식, 칭찬해 줘시다 등 주말 오후 가족들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정보 오락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또 국악프로인 '우리노래 기행'(밤 9시 45분)과 '세상만사 덩더쿵'(일요일, 오후 2시 15분)을 신설해 민족문화를 생활속에서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길은 찾아서'(일요일, 저녁 7시), 'BBS 토론, 철학과 현실'(일요일, 밤 9시 25분) 등도 이번 개편에서 내놓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nia.com)



불심으로 가는 그 길에 언제나 자비로가 함께 합니다!

자비로 제품특징 남녀공용(225mm~265mm)

- 천연가죽 뉴백의 사용으로 착화감이 뛰어남
- 하이퍼그립의 사용으로 미끄럼방지 및 접지력 탁월
- 특수방수 처리
- 스토퍼를 사용해 워킹시 발의 안정감을 줌 (스토퍼 고정용 자석 부착으로 착화시 더욱 편리해짐)
- 통기성이 뛰어난 고급삼베 인솔 사용
- 가볍고 편안해서 스님 및 불자들의 신행에 적합

전국 르까프 매장에서 만나실수 있습니다

- 본사 051309-7000
- 서울영림본부 023200-600
- 동서울지점 023200-620
- 남서울지점 023200-790
- 대전지점 042582-1892
- 호남지점 062956-2131
- 대구지점 0531964-5476
- 영남지점 051309-7110

Only One Number One — 본사/부산광역시 사상구 심학동 388-1 TEL: 051-309-3663/371
(주)트렉스타 FAX: 051-309-3666 서울영림소/02-863-2566
http://www.treksta.co.kr



성불화-자비로

고마우신분들께 사랑을 선물하세요!